

■ 본업 '글쓰기' 대신 '노래'로 다가선 문인들



한강



임의진

온몸으로 세상을 노래한다

작가들이 노래를 한다. 소설가, 시인,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문인들이 '글' 대신 '노래'로 우리를 찾아왔다. 작가들이 직접 가사를 쓰고 곡을 부치고 연주하는 음반들은 판에 박힌 음악이 난무하는 요즘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중이다.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씨는 최근 책과 음반을 함께 묶은 '가만 가만 부르는 노래(비채)'를 펴냈다. 한 씨는 책에서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피아노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종이 피아노'를 치던 기억을 비롯해 '내 사랑 내곁에' '황성옛터' '담배가게 아가씨' 등 추억이 아로새겨진 노래들에 대해 이야기 풀이 놓는다. 어느 순간부터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가사를 곡을 부치고 직접 노래까지 부른 한 씨는 '안녕이라 말했다 해 도' '12월 이야기' '자장가' 등 모두 10곡을 음반에 담았다. 한 씨의 목소리는 그녀의 글처럼 꾸밈없고 나지막하지만, 지친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가 된다. 강진 남부교회 목사를 접고 담양 주월

소설가 한강, 책·음반 묶은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 내

수필가 임의진 '집시의 혀' 작곡은 물론 악기 연주도

산 자락에 등자를 탄 시인이자 수필가 임의진 씨는 노래 모음집 '집시의 혀'(파스텔 뮤직)를 냈다. 임 씨는 '거리의 악사' '여행자의 로망' 등 모두 11곡이 담긴 이번 앨범에서 작사·작곡·노래는 물론 기타, 벨로디언, 페루 집시 피리, 스리랑카 벨 등 다양한 악기를 직접 연주했다. 이미 '하얀새'라는 음반을 낸 적이 있는 임 씨의 목소리는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의 느낌이 나며 묘한 울림을 준다. 최근 서양화가 한희원 씨의 그림을 담은 수필집 '참꽃 피는 마을'(이레) 개정

판을 펴낸 임 씨는 '여행자의 노래 1, 2, 3' '보헤미안' '기차여행' 등 선곡음반을 통해 이미 많은 음악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임 씨는 답답에서 농사 지으며 홈페이지(www.sunmoodang.com)를 통해 사람들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시인 위승희 씨는 2집 앨범 '러브'(한국문연)를 발표했다. 월간 '현대시' 지령 200호 기념특별 음반인 이 앨범에는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노래', 김남조의 '너를 위해' 등 모두 13곡의 시노래가 실려 있다. 호소력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인 위 씨는 지난 1999년 시인 김정랑과 1집 음반 '사이렌 프시케'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강 씨의 책에 발문을 쓴 시인 위 씨는 시인이자 인디 밴드의 멤버다. 지난 1994년 등단 후 '소꿉값' 오십니가' 등의 시집을 발표한 성 씨는 '3호선 버터플라이'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다. EBS FM에서 '세계음악기행'을 진행 중인 성 씨의 곡들은 드라마 '넋짓대로 해라'에 삽입되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百濟이래 호남불교 한눈에

국립광주박물관 불교미술실 확대 개편

국립광주박물관이 불교미술실의 전시체계를 지역 중심형으로 개편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5일 "1층에 있는 불교미술실에 금동아미타삼존불과 복장물(腹藏物·불상의 몸안에 넣는 불교상징물) 등 불교미술품 19점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불교미술실을 호남지역 유물 중심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유물을 통해 지역 불교미술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통일신라, 조선시대 등 시대별로 호남지역 불교미술품 94점을 재배치했다. 광주박물관은 그동안 지역 불교 유물이 타 시도 유물과 섞여 전시됨으로써 지

역 불교문화를 체계적으로 조망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편작업을 실시했다. 전시실 개편과 동시에 첫선을 보이는 금동아미타삼존불은 지난 2003년 순천 매곡동에서 발굴된 것으로 조선 초기 불교 조각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금동아미타삼존불과 함께 발견된 발원문은 1468년에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불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 불상조성 경위와 종교관을 엿보게 하고 있다. 이밖에 장성 내계리 5층석탑에서 나온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사리함, 사리기 등)는 각종 유리류, 동경(銅鏡) 등으로 구



국립광주박물관에 새로 들어온 금동아미타삼존불과 청동불감(불상을 안치하는 소형 불집)

성태 있어 사리장엄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꼽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500만명 돌파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이 2005년 10월 28일 용산으로 이전·개관한 지 1년 4개월 만에 4일 누적관람객수 500만명을 넘어섰다. 중앙박물관은 "개관 3일만에 관람객 10만, 44일만에 100만 명을 돌파한데 이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관람료를 유료화한 2006년에도 330만명이 박물관을 찾았다"며 2006년 관람객수와 유형을 분석한 자료를 5일 발표했다. 박물관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총 관람객수는 정확히 328만7천895명으로 하루 평균 1만명이 박물관을 찾았다. 그러나 외국인 관람객은 총 관람객수의 3% 수준인 8만7천146명으로 1일 평균 238명에 불과했다. /연필뉴스

순천서 6세기 추정 가야 유적 또 발굴

전남 동부 지역과 가야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실증하는 유적이 또 발굴됐다. (사)남도문화재연구원(원장 최인선)은 "순천시 왕지동 '순천 낙원아파트' 건설예정지를 발굴한 결과 6세기 전반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야계 석곽묘(石槨墓) 9기를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석곽묘는 순천시 덕암동 고분군과 윤영리 고분군에서 확인된 이래 3번째 발굴된 가야계 유적이다. 조사 결과 석곽묘는 해발 43~48m 지점에서 군집을 이루고 있었으며, 평면형태는 모두 가늘고 긴 사각형인 세장방형(細長方形)으로 확인됐



'순천 낙원아파트' 건설 예정지에서 발굴된 가야계 석곽묘(石槨墓).

다. 이 곳에서는 장경호(長頸壺·긴목항아리), 유계장경호(有蓋長頸壺·덮개갖출 장경호), 철도자(鐵刀子·작은쇠칼) 등의 유물이 확인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대희 시인 새시집 '물속의 불' 출간

장흥 출신 이대희(40·시인) 시인이 '상처가 나를 살린다' 이후 6년 만에 새 시집 '물속의 불'(천년의시작)을 출간했다. 1부는 현재의 세계를 표현한 서정시이며, 2부 '물속의 불'은 시인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채에서 탄생한 8편의 연작시로 이뤄져 있다. 시인은 표제작 '물속의 불'을 위해 "구상하는데 10년, 쓰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2000년 6월 완성됐지만 우여곡절을 겪다 이번에 출간됐다. 1부에서 나타나는 평온한 듯한 서정시들도 사실은 2부에서 5·18로 형성화된 광기의 역사와 연결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구불함', '리울리울', '랑랑랑' 등 시인의 귀에만 들리는 듯한 구상된 의미·의성어가 맛깔진 전라도 사투리와 잘 어울려 시 읽는 맛을 더한다. 이 시인은 장흥군 장동면 만산리에서 태어나 서울예전과 조선대를 졸업한 후 1994년 '창작비평'으로 등단했으며 현대시문학, 애지문학 등을 수상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한지공예 공모작품전' 11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70, 80년대 추억을 닮았으며 형상화한 '한지공예 공모작품전'이 11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에서는 크라운-해태제과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작이 공모대전' 입상작 80점이 선보인다. '뽕이요', '꼬마 도깨비의 달콤한 꿈', '핑크공주 딸미의 생일잔치' 등은 익살스런 표현

과 함께 아련한 추억이 되살아나는 작품들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종이접기 무료강좌도 열린다. 종이접기 강좌는 10일 오후 3시까지 신청자를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받아 진행된다. 문의 062-360-163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순옥 작 '뽕이요'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LC타워(주)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가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매
\*총면적 75평 5층빌딩 2억1,700만 원

민음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상가건물 매매
\*토지: 508평(못매장, 병원, 목식장, 음악홀, 기) 용도지역: 행정4770만 원

동부부동산(주)
1. 광안동 1200평 1층주거지 2억5000만 원
2. 서구 동원동 27-77번지 대단지 2억2000만 원

토우드공인중개사
\*상가건물 800평 당 도로면적 4000평
\*전면 3000평 대단지 (영광동) 도로면적 4000평

다우공인중개사
\*오봉리 전원주택지 (평당 30만)
\*남양 현대저층차 출고장 건너편 오봉리(뉴시티) 바로 옆 210~360평 8층빌딩 4월 시공사

(주)홈컨부동산
정말하고 과학적인 검증
(주)홈컨부동산 리서치중개
상무지구 시장앞 한국은행후면